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3. 5.(월) / 총 3매(본문 3)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담당자	• 과장 안석환, 사무관 황성필, 주무관 정사랑 • ☎ (044)201-3804, 3788, 3785	
보 도 일 시		2018년 3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평창올림픽 성공 이끈 ‘교통’ …패럴림픽 성공까지 잇는다

패럴림픽 기간 KTX 장애인석 · 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패럴림픽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3월 9일(금)부터 18일(일)까지 10일 간 개최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국내·외 휠체어 관광객의 원활한 개최지 접근을 위해서는 세심한 교통 서비스가 필요하다.

* 기간(17→10일), 종목(15→6 종목), 운영인력(5.5만→3만), 관중(140만→22만) 등 축소

○ 이를 위해, 패럴림픽 기간 인천공항~강릉 간 4회를 포함하여 경강선 KTX를 하루 편도 주중 22회, 주말 30회 운영하고, 편성 당 휠체어 좌석을 기존 5석에서 15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휠체어 좌석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춘 1, 2호차에 10석을 추가로 확보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3~8호 차량 객차 당 10석씩 총 60석을 우선예약 좌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출발 20분 전까지 예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석으로 전환

- 아울러 교통약자의 열차 승하차 및 환승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레일 장애인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특히 해외 휠체어 이용객의 인천공항~개최지 이동 간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도록 인계 지점 및 소관구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또한, 인천공항 내 장애인 전용 라운지와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했다.
- 개최 지역 내에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저상버스 48대와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를 확보하였으며, 이 중 저상버스는 관중 셔틀버스 13개 노선에 투입되어 노선별 6~20회 운행될 예정이다.
- 평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패럴림픽 전체 관중 22만 명 중 휠체어 관광객은 총 3,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외국인은 100여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 선수단 등 클라이언트(총 6,000여 명 중 휠체어 장애인 300여 명)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확보한 특장버스(46대)와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수송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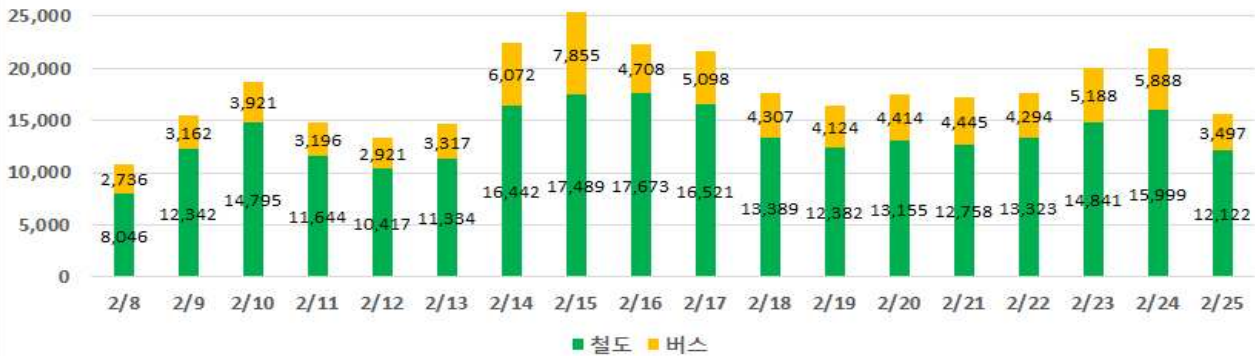
- 폐회식(3. 18.) 에는 외국인 10여 명을 포함한 450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 관중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티켓 중복 구매율과 대중교통 분담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의 철도 수송 공급(휠체어석 주말 450석, 인천공항發 60석)을 확보했다.
- 아울러, 조직위원회는 국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함께 시도별로 '경기관람 특별 수송지원 프로그램(버스 임차)'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 국내 교통약자 관람 수요를 대거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달 25일 폐막한 올림픽에는 총 32.5만 명이 KTX와 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방문하였으며, 차량은 총 96만 대가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번 올림픽에는 누적 140만 명이 방문하는 등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고속도로망 확충 및 통행료 면제 등과 함께 경강선 KTX 신설과 시외·고속버스 증차 등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Go 평창”* 등 새로운 O2O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조직위에서 개발한 올림픽 수송통합 앱으로 11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 기록

- 특히, 경강선 KTX는 수도권~개최지 간 이동시간을 2시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시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올림픽 수송에 크게 기여했으며, IOC는 평창 올림픽의 대표적 유산으로 교통 인프라를 언급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개최지역 주민들은 강릉 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였고, 1.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교통 안내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모든 국민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올림픽 성공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 국토부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은 올림픽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패럴림픽 기간에도 조직위 교통관리센터에 국토부 인력을 파견하여 패럴림픽 수송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원활한 교통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